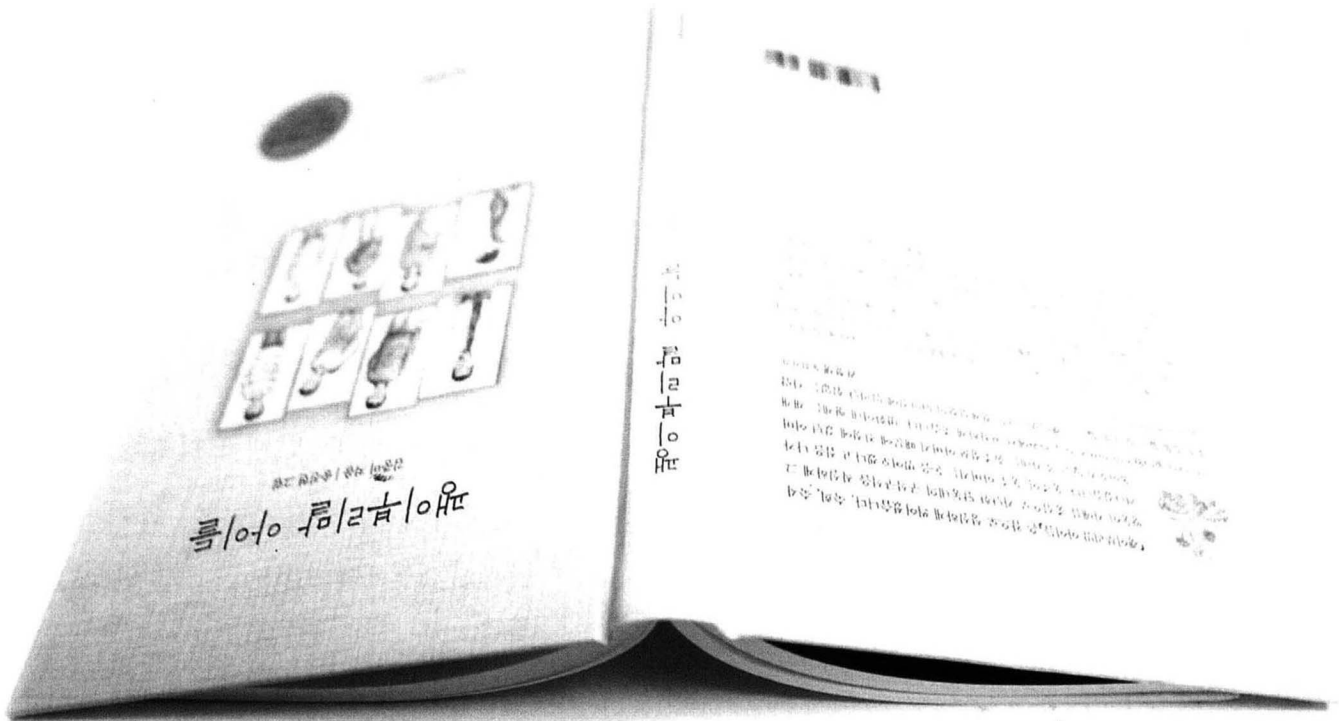


마음을 부비며 살아가는 팽이부리말 아이들

송선희_삼성경제연구소 출판팀



《팽이부리말 아이들》

김중미 지음·송진현 그림 | 창작과비평사 | 280쪽 | 값 8,000원

누군가가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과연 몇 명이나 “네,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가끔 자신에게 주어진 행복 앞에서 불행하다고들 한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고,
 또 누리고 있는 그 이상의 행복을 갈망하곤 한다.

그러나 잠시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보면

지금 우리 앞의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느끼게 될 것이다.

이 책 《팽이부리말 아이들》은 가난하고 힘없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아이들을 통해 진정한 삶과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해준다.

“몇 해 전 겨울, 흑석동 산동네로 봉사활동을 나간 적이 있었다.
거창한 봉사활동은 아니었고 연말이면 으레 그렇듯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쌀과 약간의 성금을 전달하는 일이었다.
사실 내가 직접 발로 뛰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어떤 말을 하며
성금을 전달해야 할지 내심 걱정이 컸다.
멀리서 보면 겹겹이 포개져 있는 듯 보이는 뻣뻣한 집들을 지나 문패가 반쯤 쪼개져 나가고
이름 두 자만 남아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두근거리기만 했던 내 가슴 속의 사랑은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충격으로 뒤바뀌고 말았다.
집 주위는 온통 잣더미로 쌓여 있었고, 그 집 또한 주위의 화재로 인해 지붕이 눌러 있었다.
생명을 잃은 것처럼 온기 하나 없는 집안.
“안에 아무도 안 계세요” 방문을 향해 흘리듯 말을 내었다.
잠시 후 할머니 한 분이 다리를 절룩거리며 나왔다.
손톱만한 햇볕조차 쬐어보지 못한 듯 할머니의 모습은 굼주림과 추위에 찌들어 보였다.
나는 쌀과 성금을 전하고는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다.
나의 미약한 체온이라도 전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팽이부리말 아이들》을 읽으며 몇 해 전 찾았던 흑석동
산동네가 머리 속에 떠올랐다.
끝이 보이지 않는 층층의 계단과 숨이 막힐 정도로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들.
잡풀조차 이 동네의 가난이 싫어 스스로 햇빛을
거부할 것 같은 동네.
이것이 팽이부리말의 모습이다.
팽이부리말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물질적으로 줄 것이 없다.
행복을 느끼는 찰나의 순간에조차 또 다른 불행이
찾아온다. 이들은 마음 속에 행복을 담기에 이쁨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다.
숙자 아버지의 처참한 죽음, 동수 아버지의 가출,
영호 어머니의 죽음....
가난에서 떠나려고 하듯 사람들은 하나둘 영혼을 향해
퍼덕 날갯짓을 한다. 어쩌면 팽이부리말이 이들을
떠나보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온종일 일을 해도 입에 풀칠하기조차 버거운 이들에게

하루는 너무 길다. 어떻게 보면 팽이부리말이 생기고부터
가난의 대물림은 계속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영호는 가난을 냉혹한 현실이기보다는 그저 생활의
불편쯤으로 여긴다. 특별히 배운 것도 내세울 것도
없지만 영호는 두 팔을 벌려 이들을 감싸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아닐까?
너무도 가난한 사람들. 숙자, 숙희, 동수, 동준, 영호, 명희
선생님. 이들은 가난이란 굴레를 사랑으로 승화시킨다.

좀처럼 봄이 찾아올 것 같지 않던 팽이부리말.
그러나 이들에게도 봄은 찾아왔다.
손바닥만한 구멍 사이로 마알간 햇살이 들어오고 벽돌담
사이로 파란 민들레 싹도 돋아났다.
마음을 부비며 살아가는 팽이부리말 사람들. 이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희망의 꽃이 활짝 피었으면 한다. 